

약탈 문화재 반환 해법은?

유네스코·문화재청 관련국 전문가 25명과 국제회의



◇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가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9월 30일~10월 3일 서울 남산 티워호텔에서 열렸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에게 약탈된 문화재들을 돌려받을 해결책은 없는가? 10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과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당사국간의 문화·외교적 갈등을 넘어 국제적 사안으로 떠오른 불법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이 9월 30일~10월 3일 개최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반환 관련 전문가와 국제경찰 인터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관

심사는 약탈 문화재 반환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사례.

특히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성공 사례가 관심을 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 도제소장품관장인 페터 펜츠는 9월 30일 '과거 점령 및 전시 유출 문화재 반환' 주제 토론에서 20세기 초 덴마크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약탈한 문화재 3만5천여 점을 1984년부터 17년에 걸쳐 그린란드에 반환한 사례를 소개했다.

반환원칙 동의하나 나라별 입장 큰 차 해외 반출 불교문화재 목록정리 시급

3만5천점이 넘는 유물 반환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박물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그린란드가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을 되찾는 것과 덴마크가 자국 박물관내에 그린란드의 값진 소장품을 보유하고자 하는 희망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피터 펜츠 관장은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의 역사를 존중하기 위한 상호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특히 소유권과 관련해 불 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린넨 프루트 국제유산법 전문위원은 "유물의 물리적 양도 없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원산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몇몇 원산국은 소유권 자체를 잃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보유국은 소유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된다. 스테판 터너 독일 사르랜드 대학 교수(법학과)는 영국의 예를 들어 "원 소유주가 문화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반환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중앙과학원 국제법 협력센터 연구실장인 마리 코르뉴는 "반환 원칙에는 동의하나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문화개혁시민연대 김성환 문화유산위원회 간사는 "외국의 경우 약탈 문화재에 대한 목록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제시대 일본으로 반출된 불교문화재의 경우 사찰의 기록이 안 남아 있거나 폐사지에 있던 유물의 경우는 아예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②

벽화서 탕화로

불전(佛殿)에 들어가 보면, 중앙의 수미단 위에 불상이 놓여 있고 그 뒤에 후불벽화나 후불탱화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대상이다. 고려시대의 사찰에는 지금과 같은 후불탱화가 없었고 후불벽화를 중앙에 세웠다. 후불벽화보다 덜 중요한 불화의 경우는 탕화로도 그려졌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았다. 적어도 16세기 이전까지는 후불벽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후불벽화 대신 후불탱화가 등장한 것이다. 1587년에 제작된 석가팔보살도(일본 오사카 시텐로지(四天王寺) 소장)가 그 변화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이 불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극락후불벽화가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벽화는 제작시기가 불과 일십년 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양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불경사후불벽화가 고려시대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무위사후불벽화는 고려와 다른 조선시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15세기 후반은 고려적인 벽화에서 조선적인 벽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불경사후불벽화에서 고려시대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변의 상들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원근법에 의하여 배치되었으나, 석가불과 양쪽의 보살은 이들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 가까운 것은 크

16세기 후반 큰변화... 벽화 대신 탕화 등장

조선초 불경사 후불벽화 고려불화 계승

오래된 후불탱화이다. 이 불화를 통해 일진왜란 이전에 후불탱화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후불탱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이후이다. 양란을 전후한 시기에 벽화의 시대에서 탕화의 시대로 옮겨 간 것이다.

1997년 1월 16일 불경사 대웅전의 후불탱화 뒤에 가려져 있던 후불벽화가 세상에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벽화는 15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초기 후불벽화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5세기의 후불벽화로는 불경사후불벽화가 처음이 아니다. 1973년에 1476년에 제작된 무위사

계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지닌 시각의 한계이다. 주변의 상은 인간의 한계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불과 보살은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고려시대 후불벽화는 한 점도 전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탕화이거나 사경화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후불벽화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현재 남아 있는 탕화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소시켜 주는 것이 불경사후불벽화이다. 불경사후불벽화는 무엇보다도 고려시대 후불벽화를 떠올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조선초기 후불벽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경사 후불벽화.

"불교는 수준 낮다" 비아냥

박치완 교수 서양인들의 왜곡된 불교관 소개

"서양의 불교 오해 바로잡기 우리 책임"



우리가 동양 문화와 정신의 정수라고 생각 하는 불교에 대해, 서양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한국의국어대 박치완 전임교수(철학과·사건가 최근 나온 <오늘의 동양사상>(예문동양사상연구원, 반년간) 7호에 기고한 '아직도 보편을 말하는가-서양인들에 비친 동양 그리고 불교'를 보면,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서양인들에게 불교는 종교도 철학도 아

니다. 알베르 까뮈가 인정했던 문필가인 장 그라니에는 "불교는 반론의 가치마저 없는 아주 '수준 낮음' 종교일 뿐이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참된 고등의 종교"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불교도의 학설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궤변" 정도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헤겔 같은 대철학자도 마찬가지다. 헤겔은 불교를 3단계로 나누는데, 불교, 바라만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등 동양의 자연종교를 우상 숭배와 함께 최저 단계에 놓고 있다.

서양에서 동양 불교의 대가로 통하는 스텔라 바사의 <선(禪)으로의 초대> 프랑스판에 실린 구스타프 용의 서문은 거의 경악의 수준

이다. 시종 '이 짝은 경계하고 읽지 않으면 위험한 책'이라는 논조를 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서양인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불교의 선은 마치 (서양의) 어떤 신비주의자가 '계시'에 의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떠드는 것과 같다"며 불교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비교종교학자 프리트즈프 쉬은의 <마음의 눈>은 불교는 물론 동양 철학 전반에 대한 오해의 전범이다. "불교의 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관(觀)이 명백히 부조리한 방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관은 들에 들을 데해 다섯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부조리하다."

박 교수는 "우리의 일방적인 서양 옹호 내지 혐오와 달리 그들은 동양을 향해 예나 지금이나 그저 무지의 '필남'만을 폭력적으로 휘둘러 대고 있다"며 "곡해된 동양을 있는 그대로의 동양으로, 곡해된 불교를 참된 불교로 복원해야 할 책임은 서양인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성덕대왕 신종 소리 비밀 당좌 위치에 숨어 있다

1, 2차 진동음 어우러져 저음·장중한 여운 남겨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그 신비의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강원대 김석현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3일 국립경주박물관의 성덕대왕신종 진동 및 음파 조사를 위한 다중행사 뒤 열린 특별 강연에서 "지난 해 10월 9일 타종한 성덕대왕신종의 음향을 측정·분석한 결과 당좌(當座, 종 치는 자리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차 진동음의 교차과정에서 우수한 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즉 2.9초의 맥놀이 주기를 갖는 1차 진동음(64.07Hz, 64.42Hz)과 9초의 맥놀이 주기를 갖는 2차 진동음(168.52Hz, 168.63Hz)의 맥놀이를 모두 발생시킬 수 있는 지점에 당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2차 진동음의 경우, 당좌는 두 개의 주파수를 대동하게 발생시키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2차 진동음의 두 개 주파수가 어우러지면서 성덕대왕신종 특유의 종소리를 발생시킨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진동음과 2차 진동음의 맑은 고음이 어울리면서 웅장하면서도 청명한 특유의 종소리를 내게 된다.

권형진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 원로위원장 법효 서봉
- 총회위원장 법정 만춘
- 총무위원장 법도 일오
- 총회부위원장 법철 혜심
- 포교위원장 법운 기현
- 법계위원장 법성 대이
- 사서실장 법명

▷ 총무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 031)448-8811 FAX 031)448-8006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상무이사 선근

- 이사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 동진 경순 자민 성우 상원 정덕
- 감사 대허 법운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우110-240)
☎ 02)734-9654~6 FAX 02)734-3410